

Coram Deo

# 우리는 예수사람 이에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기도회	김태영 목사
찬양	Shem과 함께
대표 기도	이주호 형제
성경 봉독	다같이
말씀 선포	송요섭 목사
기도회	다같이
봉헌송	다같이
축도	김태영 목사
광고	문정환 형제
축하 순서	신민경 자매

빌 2:1-5

## 청년부를 섬기는 사람들

지도 김태영 목사    부장 이혁주 장로  
회장 이수연 자매    부회장 문정환 형제

##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대표 기도 및 봉사순

09월 23일	이수연 자매	박문영 자매
09월 30일	문정환 형제	이승환 형제
10월 07일	박문영 자매	이주호 형제
10월 14일	이주호 형제	정혜진 자매

## Shem과 함께 배우는 새로운 찬양!

### 아름다우신

Words and Music by 심형진

대만매 주를향 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였으 나  
십자가 그 사랑 찬 양 하 리 날 구원 하신 그사 랑

날 향한 주님의 크 신 사 랑 영원히 찬양 하 리 라  
내 삶을 드러 찬 양 하 리 라 놀 라 우신 주의 사 랑

영원히 찬양 하 리 - 라 아 름 다 우 신 - 오 늘 라

우 신 - 영원 할 - 수 없는 사 - 랑 - 오 위 대

하 신 - 하나 님 의 사 랑 영 원 히 찬 양 하 - 리 -

Bridge  
주와 같은 분은 없 - 네 - 이 세상 - 그 누구 도 - 주와

같은 분은 없 - 네 - 누구도 비길 수 - 없 네 - 주와 - 아름다

## 모임시간 안내

- ♪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청년부실
- ♪ 청년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시/청년부 교사실
- ♪ 찬양팀 모임    토요일 오전 10시/청년부실
- ♪ 문서팀 모임    토요일 오후 5시/청년부실
- ♪ F.C 예배 모임    토요일 오전 (시간은 때에 따라)
- ♪ G.S 선교팀 모임    수요일 오후 8시 30분

## 문정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광고들!

1. 오늘 설교는 송요섭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2. 2007 청년부 비전축제가 있습니다.  
일시 : 2007년 10월 21-11월 11일  
주제 : 빛을 들고 세상으로(사60:1)
3. 비전 축제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봉사와 전도 신청하신 분들  
청년부실로 모여주세요.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모두 함께 모여 준비해요~  
(팀원들도 함께 모여주세요)
4. 순장님들은 주간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 주보를 만드는 사람들

:  
:  
문서 선교팀 커뮤니티  
[www.coram.kr](http://www.coram.kr)  
이제 쉽고 편하게! 코람닷컴이알~

## 기도의 무게 – 장성산 칼럼



2차대전이 막 끝났을 무렵, 유럽의 폐허미 속 한 거리에 여인이 잡화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성탄 선물을 준비하러 잡화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저에게 돈이란 한 톨도 없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대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여기 저울 위에 올려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봅시다. 저울 눈금만큼 내가 물건을 주리라." 사실 주인은 비꼬는 투로 그냥 던져 본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침 제가 어제밤 기도문 한 편을 썼습니다." 하고는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집어내어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면서 아무 말없이 저울 반대편에 빵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일입니까, 저울이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조금 상기된 얼굴로 다시 몇가지 물건을 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여인 앞에서 부끄러워 오기가 창피하기도 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여기 봉투에 당신이 필요한 것 담아서 빨리 여길 나가시오. 바빠 죽겠는데 더 이상 계류하지 말고 빨리 가요." 그 여인은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로 물건을 담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은 그 뒤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였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어 저울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울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인은 혼자서 몇 번이고 이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만화로 보는 묵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무릎양에게  
당신의 오른팔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경험하며 또 경험하게 하실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해요.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뻐 회신하라.

시편 81:1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요한 2:21

그러나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뭇 듯이 기뻐하게 하라.

시편 68:3

무릎이 네 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사람 아자!

## 기도의 무게 – 장성산 칼럼

어떻게 그 여인이 자신의 가게에 왔을 때 하필이면 그동안 아무런 말썽이 없던 저울이 고장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동안 쳐다도 보지 않고 던져 두었던 그 여인이 저울에 올려 놓았던 조그만 편지봉투 속의 기도문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런 짧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나요? 하루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내줍니다. 또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한 달을 보내고, 그리고 한 해를 보내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주님,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먹이를 예비하시고, 거처를 허락하시는 주님. 날마다 세상은 우리 삼켜서 세상의 저울을 우리 앞에 내밀고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것과 소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마땅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 주시며, 공급해 주십니다. 나의 소고와 열심이 무게 없으니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무게가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찌 우리와 주님과의 고제를 저울로 잴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그 무엇이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무게만큼 무게를까요?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닌,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13]